

보도일시	2025.5.16.(금)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단장 : 안규백)
담당자	박영화 팀장(010-4652-0520) / 김윤진 팀장(010-5672-8877) / 나호선 팀원(010-9073-1328)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이재명을 이제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프로농구 은퇴선수 스포츠인 1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프로농구 은퇴선수를 비롯한 체육인 100인은 16일(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체육인연대와 총괄특보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프로농구 은퇴선수를 주축으로 축구, 배구, 씨름,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 100인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 행사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 상황실장(국회의원, 경기 고양정)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들과 체육인 지지자 100명 중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박건연 KXO(한국3x3농구연맹) 회장은 여자 프로농구 현대산업개발 코치를 시작으로, 외환은행·우리은행 감독을 역임했으며 국내 농구계에서 남녀 프로팀과 국가대표팀을 모두 이끈 보기 드문 경력을 가졌다. 현재는 한국 3x3농구연맹 회장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연결을 위한 활동 중이다.

□ 체육인들은 이날 발표한 공식 포스터를 통해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이재명을 이제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고 밝히고 “선수 생활은 짧지만,

은퇴 이후 인생은 긴데, 체육인도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의 공공성과 복지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현할 정치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 뿐”이라며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이번 지지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체육계와 정치권 연대 강화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은퇴선수 지원 및 진로 전환 지원 체계 구축,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발전 방안 제안, ▲스포츠 복지 확대 및 지역 체육 균형 발전 추진 등의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끝>

【붙임 : 행사 사진】

